

- 집 일 조** 김관영 이은주 김미선 이준희 김종임 김필순 라살자 박성연 서명희 신용국 유경자 안양수 라춘화 유효선 이기월 이명원 이성희 임재택 백은옥 임정숙 전선옥 정종갑 이진화 최은숙 한동규 추은영 한광수 조혜숙 한중수 최연희
- 감 사 헌 금** 강미경 박일수 고석민 이철순 김관영 이은주 김미선 김세문 김순자 김종임 노년환 김명자 박상연 박수진 박전서 박종엽 백영석 최인숙 백경민 시 은 신영식 신용국 유경자 신우희 신화성 유승민 유영중 고은숙 유재식 유효선 이분남 이성희 이성희 이연우 이종숙 이종숙 최용재 이현주 장태순 김상일 전선옥 전순희 정지흥 조숙자 최경순 최연희 최연수 최연희 최영민 한금자 홍성수 홍안순 무명
- 장 학 헌 금** 고진권 강석구 서문희 신윤순 이기월 이성희 이은영A 임성희 전선옥 한광수B 한금자 한중수 한태희
- 구 제 헌 금** 강석구 서문희 고진권 신윤순 이성희 이은영A 전선옥 한광수B 한금자 한중수 최연희 한태희
- 선 고 헌 금** 강석구 서문희 고진권 이성자 신윤순 유경자 이기월 이성희 이은영A 이풍고 백미옥 전선옥 채희수 한광수B 한금자 한중수 최연희 한태희
- 성탄감사헌금** 권항희 김종임 이명원 이성희 최진모
- 신년감사헌금** 광영례 광영숙 광항희 김문겸 김진원 김성복 이종희 김정자 김종임 김지웅 박순영 서명희 신희호 김명인 유경자 이분남 이성희 이순자 이현주 임귀순 임재택 백은옥 전현숙 정화훈 조경순 전병옥 좌병례 좌병희 좌정규 이종숙 최용재 최중희 추은영 한광수B 한상락 한혜영 한승희 한다연 무명
- 생일감사헌금** 김영인 박희순 한중수

## 교회 소식

### 1. 오늘

- ① 오늘은 주현절 둘째주일이며, 여신도회주일입니다.
- ② 3부예배 후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 2. 다음 주일

- ① 다음 주일은 주현절 셋째주일입니다.

### 3. 예배안내

- ① 교회 내 모임 최소화를 위하여 주일저녁예배는 없습니다.
- ② 교회학교는 비대면(온라인,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 4. 헌금안내

- 목적헌금(구제 . 선교 . 장학헌금)은 전액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다.
- 많은 동참 바랍니다.

### 5. 2022년 요람안내

- 요람제작을 위해 전화번호 및 사업체변경 사항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고, 요람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진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23일까지)

### 6. 헌물

- 꽃꽂이 : 고춘식 권사
- 2022년 꽃꽂이 헌물하실 분은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7. 축하

- 미래교육캠퍼스 힐링센터 개설 : 이명희B집사

·온라인 헌금 안내: **농협 351-1053-9463-73 대천장로교회**

##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삼상 25:32-35)

작년에 작고(作故)한 노태우(盧泰翹) 대통령의 이름을 보면, ‘크게 어리석다’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반어법(反語法), 곧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악역(惡役), ‘나발’ 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였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삼상 25:3).”** 나발의 어리석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본문이 오늘 말씀이요, 그와 확연히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큰 인물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아직은 왕이 되지 않은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主)’ 라고 부르며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였다(23) ... ‘되느 나에게 있습니다. 이 종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24).’** 뿐만 아니라 장차 왕이 될 사람이 행실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고 훈계까지 합니다.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31a).”**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풍성하여 이웃과 나누고 배풀며, 즐거워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는 추석과 같을까요? 아니면, 감장을 하면서 수육을 먹고 나누는 그런 날일까요? 여하튼 인심을 배풀고 서로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날, 다윗이 동네 유제(有未)였던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윗이 나발의 집을 지켜 주고 보호해 주었으니 어쩌면 당연한 권리행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 하여 준 사람들입니다(15a)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피 주었습니다(16).”** 나발의 종이 아비가일에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주인을 떠나는 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없는 것들이 음식을 달라고..(10-11).”** 이에 다윗은 배은망덕한 나발의 집을 초토화 시키기로 다짐했고, 군대를 일으켰던 겁니다. 그 긴급한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은 것이지요.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종들을 보내 다윗과 그 부하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마치 옛날 **아랍이 예서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 종들을 앞세워 예물을 보냈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창 33장). 그리고는 단신(單身)으로 수 백 명의 사내들을 막아섭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겠습니까만, 아비가일은 믿음이 있었고, 무엇보다 말씀이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신명이 말씀, 곧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이 고백한 최고의 기도로 손꼽히는 말씀,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가까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오늘, 아비가일이 기초한 겁니다. **“주님께서 장군님의 집안을 영원히 세워 주시고, 평생토록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장군님의 생명은 주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기억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28-29).”** 쉽게 이야기해서 왕이 되실 분이 어리석은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나발을 치셨고, **다윗은 성군(聖君)으로** 우뚝 섭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들었던 숨은 주역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입니다.** 오늘은 여신도주일입니다. 우리도 말씀 위에 담대히 서서 킹스메이커, 팡강 공주가 되면 어떨까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